

光州 中心의 人口移動 特性에 관한 研究*

조 혜 중**

본 연구에서는 光州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人口流動의 特性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生殘率法에 의한 이동 및 주거지 이동의 永久的 移動과 고속버스여객의 이동 및 환자의 受診移動의 一時的 移動으로 구분하였다. 分析結果, 1986~1990년 光주시 전출입의 양상은 전남이 규모상 탁월하지만 移動空間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980~1985년 센서스의 生殘율법 에 의한 純移動의 분석과 光주시 5개 洞의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移動因子로서 教育因子와 移住者의 距離認知가 중요한 因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한편, 1日移動의 분석결과, 週末과 休日 에는 방문이동이 많고 連休에는 일시적 귀환이동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환자의 수진이동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광양, 여천의 공업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主要語：人口移動, 純移動, 日常移動, 센서스生殘率法

1. 序 論

1) 연구목적

공간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인구는 그 수나 질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물론, 공간속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공간변화의 因子로서 주목할만 하다. 특히 산업과 교통이 극에 달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인구이동의 공간적 의미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심장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都·農間の 인구이동, 도시간의 이동과 같은 특정 지역간에 발생하는 이동성향이나 인구이동을 도시화 과정이나 산업발달과 같이 지리적 사항과 관련시킨 것, 住居이동, 歸還이동, 국제이동과 같은 인구이동 중 특정현상을 대상으로 한 것 또는 모르몬(Mormon)이나 同族部落과 같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한 인구이동, 그 밖에 인구이동의 要因이나 행태 등을 분석하는 것 등, 研究태 마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筆者는 그동안 光州·전남지역의 인구분포 특성과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인구에 대한 또하나의 연구로서 光州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이동의 특성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市·道間的 인구이동수에 관한 단순한 數值的 정보는 통계청과 같은 관계기관에서 統計年報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으며 도내 각 지역간의 이동수는 지역 통계연보로부터 입수는 가능하나 이같은 관계기관의 직접적인 조사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인구통계에 의하여 개개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출해 낼 수 있다. 生殘率法이 바로 그것인데 자료사용에 따라 센서스 生殘율법(census survival rate method)과 生命表 生殘율법(life table survival rate method)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前者의 방법에 의한 전남 道內 순이동량을 구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같은 거주지 이동의 靜態的分析 뿐만 아니라 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발생하는 일시적 이동의 動態的 分析에도 큰 관심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구이동 특성을 示顯해 줄 수 있는 몇가지 主

* 본 연구는 1988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1991년 6월 대한지리학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眼點—1년 사이에 발생하는 주거지이동, 週間과 休日에 발생하는 일상적 이동성향, 患者의 受診 이동 등을 통하여 이동의 특성을 究明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거주지를 변경하는 이동(residential mobility)으로 센서스 생산율법 이동, 주민등록상의 주거지이동, 대학진학을 위해 광주로 전입하는 就學移動을 다루고, 비거주 일시적 이동으로서는 주중, 주말,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버스 승객의 1일이동과 전철받기를 원하는 환자의 受診移動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지역의 범위는 전국을 포함하며 1986~1990년을 대상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생산율법 이동은 1980~1985년의 전라남도로 한정하고 주거지 이동은 1년 간에 발생한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이동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1986년과 1990년의 중간시점인 1988년을 택하였다.

센서스 생산율법을 사용할 때에는 인구유출입이 배제된 閉鎖人口(closed population)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이라고 하는 특정지역의 인구만으로 연령층별 생산율을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의 전국 센서스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로부터 推定漏落者數, 해외취업자수, 해외이주 신청자 및 허가자수 등을 포함한 센서스 시점기준 補正人口集(set)을 마련하고(권·김, 1990, pp. 105-106) 이에 근거하여 前進法과 後進法 그리고 양자 사이의 時點差를 극복할 수 있는 平均法을 5세 간격의 연령층별로 계산, 이를 그대로 전남에 적용한다.

전진법에 의한 x세 연령층의 n년 후 순이동량(${}_rM_x^n$)은 다음 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_rM_x^n = P_{x+5}^{t+5} - P_x^t \cdot {}_5P_x$$

단, P_{x+5}^{t+5} 는 x세 연령층의 5년후 인구, P_x^t 는 t년도에 실시된 센서스의 x세 연령층 인구, ${}_5P_x$ 는 x세 연령층의 5년후 생산율이다. 후진법(${}_rM_x^n$)은 ${}_rM_x^n = (P_{x+5}^{t+5}/{}_5P_x) - P_x^t$, 그리고 평균법(${}_aM_x^n$)은 ${}_aM_x^n = (1 + {}_5P_x) \cdot (P_{x+5}^{t+5} - P_x^t) / (2 \cdot {}_5P_x)$ 에 의한

다(尹, 1977, p. 253).

0~4세 연령층의 평균법에 의한 n년 후의 순이동량(${}_aM_{0-4}^n$)은 다음과 같은 보정방법을 적용한다(李, 1987, p. 507).

$${}_aM_{0-4}^n = CWR \cdot {}_aM_{15-44}^n \cdot 1/2$$

단, CWR은 1985년 센서스의 성별 母兒比, ${}_aM_{15-44}^n$ 은 可妊여성 15~44세의 n년 후 순이동량이다.

단위지역의 순이동량은 결국 평균법에 의한 각 연령층별 순이동의 합계이며, 순이동률(NMR)은 이 합계의 각 연령층별 인구에 해당 생산율곱 곱한 수치의 누계의 절대치에 대한 비율이다. 즉, 첫번째 연령층인 0~4세에서 마지막 연령층인 85세 이상까지의 각 항을 $x_1, x_2, x_3 \dots x_n$ 이라 할 때 순이동률은

$$NMR = \frac{\sum_{x=1}^{18} |{}_aM_{x_1} + {}_aM_{x_2} + {}_aM_{x_3} \dots {}_aM_{x_n} / 5P_{x_1} \cdot P_{x_1} + 5P_{x_2} \cdot P_{x_2} + 5P_{x_3} \cdot P_{x_3} \dots 5P_{x_n} \cdot P_{x_n}|}{P_{x_1} + 5P_{x_2} \cdot P_{x_2} + 5P_{x_3} \cdot P_{x_3} \dots 5P_{x_n} \cdot P_{x_n}}$$

으로 표시된다.

생산율법 이동의 단위지역은 연구대상기간(1980~1985)에 해당하는 센서스 행정단위에 따른다. 즉 전남의 광주시 3개구와 4개시, 22개군, 1개 출장소의 30개 단위지역이다.

주거이동은 방향을 고려하여 東明洞, 池元洞(이상 동구), 雙村洞, 珠月洞(이상 서구), 斗岩洞(북구)의 5개동을 선정, 이동의 기원지(origin)와 목적지(destination)를 조사하였다.

1日人口移動은 주중, 주말, 휴일, 연휴, 대명절(新正, 舊正, 秋夕)에 발생하는 고속버스 승객의 1일평균 이동수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중은 월중 이동을 임의로 추출하였으나 연휴는 그 설정이 문제되는 바 주의를 요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해당하는 曜日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공휴일이 월요일일 경우에는 주말의 연속이므로 연휴로 본다. 예를 들어 1988년 5월 23일(석가탄신일)이 월요일이므로 5월 21일~5월 23일은 연휴이며 따라서 21일과 22일은 주말보다는 연휴로서의 의미가 더 크므로 주말의 통계에서는 제외시켰다. 공휴일이 금요일일 경우에는 1일간의 휴일이며 주말이 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연휴로 간주한다. 즉 1987년 10월 3일(개

光州 中心의 人口移動 特性에 관한 研究

전절, 토요일)과 4일은 주말이 아닌 연휴이다. 신정, 구정, 추석명절의 연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을 포함해서 3일전을 연휴로 한다.

환자들의 受診을 위한 전남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986, 1988, 1990년의 3년간의 외래환자 이동을 분석지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指標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체적인 人口移動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人口移動의 性向

본 논문의 전개에 앞서 근래 국내 인구가동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띠고 있는가를 광주 중심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통계청의 인구통계연보를 기초자료로 해서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한 1986년 이후 1989년까지의 성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광주나 전남의 순전출입 인구와 그 비율

표 1. 광주·전남 純轉出入 추이 : 1985~1990년

年度	純轉出入數		純轉出入 (%)		前年對比率(%)		1986年對比率(%)	
	光州	全南	光州	全南	光州	全南	光州	全南
1986	15,843	-76,907	1.8	-2.7	—	—	—	—
1987	7,381	-103,978	0.8	-3.7	53.4▼	35.2	53.4▼	35.2
1988	22,890	-108,839	2.2	-4.2	210.1	4.7	44.4	41.5
1989	29,175	-104,178	2.7	-4.1	27.5	4.3▼	84.1	35.5
1990	28,477	-100,070	2.5	-4.1	2.4▼	3.9	79.7	30.1

— 표시는 감소가 아니라 전출을 말함.
▼ 표시는 감소를 의미함.

표 2. 光州 轉入·轉出率의 市·道別 推移

區分	轉入				轉出			
	1986*		1990		1986*		1990	
數	9,679		121,111		83,831		92,634	
순위	市道名	%	市道名	%	市道名	%	市道名	%
1	전남	68.7	전남	62.1	전남	52.3	전남	47.1
2	서울	11.5	서울	13.6	서울	23.0	서울	23.9
3	경북	5.5	경기	6.8	경기	7.0	경기	9.8
4	경기	4.1	전북	6.3	전북	5.3	전북	5.6
5	부산	2.1	부산	2.3	부산	2.3	인천	2.8
6	경남	1.6	경남	2.0	경남	2.1	부산	2.4
7	충남	1.4	인천	1.6	충남	1.9	경기	2.0
8	인천	1.3	경기	1.0	인천	1.7	대전	1.4
9	경기	1.1	강원	0.9	강원	1.3	강원	1.1
10	강원	1.0	충남	0.9	경기	0.8	제주	0.9
11	제주	0.6	대전	0.8	제주	0.6	경기	0.8
12	대전	0.5	충북	0.7	대전	0.6	충남	0.8
13	충북	0.4	제주	0.5	충북	0.5	충북	0.8
14			대전	0.5			대전	0.5

* 1986년은 대전이 직할시 승격 이전이므로 충남에 포함됨.
자료: 경제기획원, 1986, 1990, 인구가동통계연보.

의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이 광주 순전입자수는 1987년에 격감(53.4%)했으나 그 이듬해에는 반사적으로 격증(210%)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남은 1987년 순전출자가 격증(35.2%)한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9년 광주의 전입률(84.1%)은 어

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전남은 1988년의 전출률(41.5%) 보다 약간 낮아져 1987년의 상태로 되 돌아갔다.

한편, 광주·전남은 인접한 도시·농촌간 인구이동의 사회적 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전남 전출인구의 상당수는 인근 중핵도시

표 3. 1986년 對比 시·도별 광주 전입률의推移

(단위 : %)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市道名	전입률	市道名	전입률	市道名	전입률	市道名	전입률
서울	7.4	서울	23.1	서울	46.2	서울	43.0
부산	6.7	부산	9.0	부산	32.1	부산	36.1
대구	2.3	대구	21.7	대구	36.2	대구	19.9
인천	6.4	인천	51.0	인천	35.8	인천	57.4
경기	13.6	경기	44.2	경기	53.6	경기	100.8
강원	9.9	강원	14.7	강원	14.6	강원	11.5
충북	10.0	충북	92.9	충북	68.3	충북	82.1
충남	17.3	충남	29.6	충남	8.7▼	충남	23.5▼
전북	0.8▼	전북	20.1	전북	31.1	전북	40.4
전남	4.2▼	전남	21.3	전남	11.7	전남	9.7
경북	8.9▼	경북	50.4	경북	11.1	경북	13.4
경남	3.7	경남	35.9	경남	42.7	경남	45.5
제주	2.5▼	제주	4.6	제주	20.6	제주	14.6

▼ 표시는 감소를 의미함.

자료 : 경제기획원, 1987~1990, 인구이동통계연보.

표 4. 1986년 對比 시·도별 광주 전출률의推移

(단위 : %)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지역	전출률	지역	전출률	지역	전출률	지역	전출률
서울	4.6▼	서울	31.4	서울	24.1	서울	14.8
부산	2.8	부산	5.2▼	부산	10.7▼	부산	6.1▼
대구	22.0▼	대구	4.6▼	대구	10.3	대구	5.0▼
인천	10.1	인천	48.4	인천	51.1	인천	81.3
경기	13.9	경기	40.3	경기	46.5	경기	54.6
강원	17.0▼	강원	13.1▼	강원	6.5▼	강원	9.0▼
충북	0.2	충북	41.9	충북	43.4	충북	75.4
충남	21.8	충남	21.4	충남	51.6▼	충남	51.0▼
전북	0.7	전북	5.8	전북	8.6	전북	16.9
전남	16.6	전남	13.8	전남	5.1▼	전남	0.4▼
경북	2.4	경북	13.8	경북	13.4	경북	10.4
경남	8.9▼	경남	17.0	경남	5.4	경남	5.5
제주	3.9	제주	11.8	제주	15.3	제주	53.3

▼ 표시는 감소를 의미함.

자료 : 경제기획원, 1987~1990, 인구이동통계연보.

유형	형 태	전 입	전 출
A 형 (지속적 증가형)		부산·경기 경남	인천·경기·충북 전북·제주
B 형 (최근감소형)		서울·대구 강원	경북
C 형 (점증형)		전북·인천 충북·충남	—
D 형 (점감형)		전남	서울
E 형 (증감교차형)		경북·제주	경남·대구·강원 부산·충남·전남

그림 1. 전국 시·도별 광주 전입·전출률의 유형 : 1986~1990년

광주로 향하고 있으나 1987년 56.1%를 정점으로 49.9%(1988년) 45.8%(1987년)처럼 광주로의 전출비율이 점감적이며 광주 이외 타지역으로의 분산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광주 전출입률의 시·도별 분포를 보여주는 표 2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전입, 전출 모두 인근지역 전남에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정도가 다소 감소하고 대신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탈월하여 이동공간을 확대해가고 있다. 광주로의 전입률은 서울이 근거리인 전북보다 그리고 전출에 있어서도 서울 경기가 전북보다 우세하여 인구이동에 있어 수도권과의 상대적 접근성 효과에 의한 都市內破(urban implosion) 현상을 보인다. 광주와 경상도간의 이동은 부산·경남이 대구·경북보다 많으며 강원, 충청, 제주도와는 적은 상태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표 3, 표 4와 같이 각 시·도의 광주 전출입 추이를 1986년 대비율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등지로부터의 전입이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밖의 지역에서도 비록 증감의 변동을 보이기는 하나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출에 있어서는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지에서 점증적이며 전남, 충남에서 정감적이다.

한편 전국 시·도별 광주 전출입률의 추이를

유형별로 보면 그림 1과 같은데 전입과 전출 모두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은 경기가 유일하다. 즉, 광주와 경기 사이는 전출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천 역시 지속적 증가(전입)나 점증형태(전출)를 보이는 반면 서울은 최근 감소(전입)나 점감형태(전출)로 나타나고 있어 광주 중심의 전출입은 수도권의 중핵인 서울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점차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일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ning and Kontuly(1978)에 의하면 선진지역일수록 중핵지역으로의 전입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한국의 선진화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서울로의 전입인구의 감소현상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합리적 개발정책만 원만히 수행된다면 歸還移動(return migration)도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3. 永久的 移動

1) 生殘率法에 의한 이동분석

人口移動은 그 기간에 따라 영구적 이동과 일시적 이동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며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동을 뜻한다. 한 지역의 인구이동은 지역

의 특성, 특히 연령 및 성별구조의 인구적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서는 센서스 생산물법에 의해서 1980~1985년 전남지역 純移動과 總純移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순이동(net migration)

전남은 광주시 북구, 서구, 광양군, 여천 출장소를 제외한 전지역이 전출지역으로서 광주 북구와 서구는 순전입률이 26.2~22.9%의 높은 비율을, 광양군과 여천 출장소는 그보다 낮은 9.8~9.2%를 보인다. 전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나주군으로 전출수 (-)83,428명, 전출률 46.7%나 된다. 이처럼 전출률이 높은 것은 나주군의 경우 실재이동이 아니고 그 지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하여 금성시(현 나주시)로 승격, 분할된 때문이다. 목포, 여수, 순천, 금성 등 당시의 전남 4개시는 비록 행정시이지만 미약한 전출지역으로 모두 애그로타운(agrotown)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주 동구는 전출률 0.9%의 광주 유일의 전출지역이다. 앞서 말한 나주군을 비롯하여 전출률이 10.0% 이상 되는 지역이 전체 30개 단위지역 가운데 20개나 되어 전남이 전통적 전출지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전

입지역의 전입률을 성별로 보면 여성은 광주 북구(28.9%), 광주 서구(24.6), 여천 출장소(10.1), 광양군(6.1), 순천시(0.8), 광주 동구(0.4), 목포시(0.2) 순이고, 남성은 광주 북구(23.5), 광주 서구(21.2), 광양군(13.4), 여천 출장소(8.5) 순으로 광양군을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전출입의 연령분포를 보면 전연령층이 전입한 지역은 여성의 경우 광주 북구와 서구 뿐이며 남성은 없다. 전연령층이 전출한 지역은 여성의 경우 나주, 장흥, 화순군이며, 장성군은 85세 이상의 연령층만 제외한다면 이 범주에 든다. 남성의 경우는 나주, 장흥, 함평, 고흥, 영암, 강진, 장성군이며 역시 85세 이상의 연령층만 제외한다면 완도군도 여기에 해당한다. 목포의 여성, 순천의 여성인구를 제외한 전남의 시지역도 대개 전출지역이나 다만 15~19세의 학생 연령층만이 전입하고 있다. 특히 순천은 15~19세층 남성 전입률이 43.7%로 광주 평균 63.8%보다는 낮지만 목포(21.4) 등의 다른 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연령층인 20~24세층이 무려 44.0%나 전출해 버리는 급반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순천이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순

표 5. 생산물법에 의한 전남의 시·군별 순이동수 및 비율 : 1980~1985년 (단위 : %)

순위	지역	전출입수	비율	순위	지역	전출입수	비율
1	나주군	-83,428	46.7	16	목성군	-12,928	18.1
2	장흥군	-28,785	26.5	17	무안군	-18,216	16.4
3	광주 북구	57,259	26.2	18	해남군	-26,502	16.4
4	함평군	-21,501	23.3	19	영광군	-13,446	11.7
5	광주 서구	64,905	22.9	20	담양군	-9,453	10.9
6	고흥군	-37,998	20.8	21	광양군	7,348	9.8
7	완도군	-23,613	19.3	22	여천출장소*	3,992	9.2
8	구례군	-10,550	19.1	23	보성군	-9,608	7.9
9	여천군	-18,434	19.0	24	금성시**	-2,416	4.3
10	영암군	-18,129	18.9	25	승주군	-3,624	3.1
11	강진군	-16,381	18.6	26	여수시	-4,645	3.0
12	신안군	-23,313	18.5	27	목포시	-4,188	1.9
13	장성군	-16,729	18.4	28	광산군	-2,350	1.9
14	화순군	-18,891	18.4	29	광주 동구	-1,859	0.9
15	진도군	-14,584	18.2	30	순천시	-791	0.7

* 1986년 여천출장소는 여천시로 승격됨.

** 1986년 금성시는 나주시로 개명됨.

光州 中心의 人口移動 特性에 관한 研究

전교가 명문고로 성장하여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의 전입이 많고 졸업 후에는 대학진학 또는 취업관계로 곧바로 진출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인구가동에 미치는 교육인자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입증한다. 광주도 남성의 경우 순천과 마찬가지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대학교육을 위한 他市·道로의 전출이동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 대부분이 전출지역임은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광양군과 여천 출장소만은 각각 9.8%와 9.2%의 전입률을 나타내는 전입지역이어서 특이하다. 광양군의 경우 특히 남성의 전입이 여성에 비해 탁월한데, 이는 제철공업입지와 직접 관련되며 여성인구의 유입은 대개 남성 기혼자의 가족이거나 유흥업의 발달에 따른 것이다. 여천 출장소는 여성 전입인구(10.1%)가 남성(8.5%) 보다 우세하며 호남에틸렌을 비롯한 종합석유화학 단지가 입지하면서 많은 산업인구를 흡입한 결과 1986년에는 여천시로 승격되었다. 1989년에는 광양군의 태극면과 골약면 일부가 통합되어 동광양시로 승격되었던 바, 이들 동광양시와 여천시는 전체의 공업입지 조건을 갖춘 광양만을 끼고 있어서 항만발달에도 적합하여 현재 원료와 제품의 수송을 위한 부두시설 및 산업철도가 완비

되어 있다. 또한 이들 두 도시는 앞으로 대규모의 항만 확장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중공업도시로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인구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총순이동(gross net migration)

여기서 총순이동이라 함은 연령층별 순이동의 절대치의 합계를 말한다. 즉 연령층별 순전출수와 순전입수의 총계로서 전연령층이 전입하거나 전연령층이 전출할 경우는 순이동의 수치와 같다. 총순이동은 비록 조사기간 내의 전이동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순이동의 합계이므로 한 지역에서의 이동의 크기를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순이동수 및 비율은 표 5와 大同小異하나 여천군, 광양군, 목포시, 광주 동구 등지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목포를 예로 든다면 순전출수 4,188명과 순전출률 1.9%가 총순이동수에 있어서는 22,586명, 총순이동률 10.4%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연령층에서는 순전입이 많은 반면 또 다른 연령층에서는 순전출이 많다는 것, 즉 연령층별 전입 전출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총순이동률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15~19세층에서 31.2(남)~33.7(여)%로 가장 높

표 6. 생산물법에 의한 전남의 시·군별 총순이동수 및 비율 : 1980~1985년 (단위 : %)

순위	지 역	총순이동수	비 율	순위	지 역	총순이동수	비 율
1	나 주 군	83,428	46.7	16	진 도 군	14,798	18.5
2	여 천 군	19,148	38.7	17	무 안 군	19,252	17.4
3	광주 북구	63,181	28.9	18	광 양 군	12,966	17.2
4	장 흥 군	28,785	26.5	19	영 광 군	19,672	17.1
5	광주 서구	66,991	23.6	20	광주 동구	35,455	17.0
6	함 평 군	21,521	23.3	21	해 남 군	27,390	16.9
7	신 안 군	26,955	21.3	22	순 천 시	16,017	14.4
8	고 흥 군	38,252	20.9	23	담 양 군	9,665	11.1
9	완 도 군	23,710	19.4	24	여천출장소	4,658	10.8
10	구 례 군	10,664	19.2	25	보 성 군	13,106	10.8
11	곡 성 군	13,607	19.0	26	금 성 시	5,820	10.5
12	영 암 군	18,161	19.0	27	목 포 시	22,586	10.4
13	강 진 군	16,567	18.9	28	광 산 군	8,678	7.0
14	화 순 군	19,061	18.5	29	승 주 군	7,978	6.7
15	장 성 군	16,761	18.5	30	여 수 시	7,435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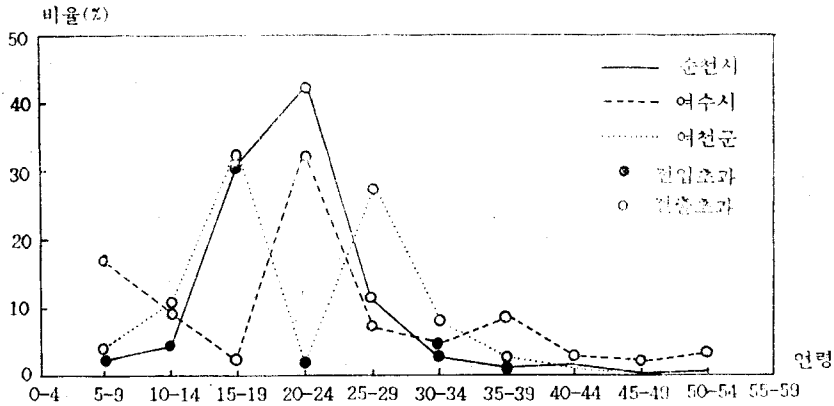


그림 2. 순천·여수·여천의 남성 연령층별 순이동률(순이동/총순이동)

고 그 다음이 여성은 20~24세(17.4%), 25~29세(8.4%), 10~14(8.3%), 순이며 남성은 25~29세(17.9%), 10~14세(10.4%), 20~24세(10.2%) 순이다. 이를 다시 시·군별로 보면 市 지역은 남녀 모두 15~19, 20~24, 10~14, 25~29세 연령층 순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한다. 郡지역은 남성의 경우 20~24세층이 6.9%로 市 지역 16.9%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신 25~29세층은 21.6%로 市 지역의 10.4%보다 훨씬 높다. 여성은 이와 반대로 20~24세에서 18.9%로 市 지역의 14.0%보다 높고 25~29세는 7.1%로 市 지역 11.3%보다 낮다. 다시 정리하면 남성은 市 지역에서 20~24세층이 郡지역에서 25~29세층이 가장 높고, 여성은 市 지역에서 25~29세층이 郡지역에서 20~24세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2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천시, 여수시, 여천군을 사례로 총순이동률에 대한 연령층별 순이동률의 비율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이로써 인구이동에 있어 남녀 연령분포에 시·군 간의 차별성을 간파할 수 있다.

2) 住居地 移動分析

여기서는 광주시 5개동을 표본으로 市內間의 주거지이동을 기원지와 목적지를 추적하여 인구이동의 공간분포를 밝혀보도록 한다.

(1) 洞別 轉入移動

1988년 한해 동안 동명동, 지원동, 두암동, 쌍촌동, 주월동의 5개동 총전입인구는 94,198명이

다. 전입이 가장 많은 동은 30,943명의 두암동이고 다음으로 주월동 25,127명, 쌍촌동 15,376명, 지원동 13,535명 순이며 가장 적은 동명동은 9,217명이다. 각 동별 전입률도 모두가 50%를 상회하며 특히 두암동(76.7%)과 주월동(64.7%)이 높다. 두암동, 주월동의 전입인구가 많은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과 신흥주택개발지역이기 때문이며, 반면에 동명동은 전통적 주택지대로 새로운 주택건설이 활발하지 않을 뿐더러 오래된 중산층의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시기를 月別로 보면 3월과 5월이 각각 11.7%와 11.1%이고 그 다음이 2, 4, 6월의 순으로 역시 봄철의 주거이동이 우세하다.

전입동별 기원지의 분포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전입이 가장 많은 두암동의 경우 두암동 자체 내에서의 이동이 시내이동 총전입률의 15.9%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中興洞 8.3% 牛山洞 7.9%, 豐鄉洞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암동 자체와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이 탁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道內에서 광주로 진출되는 인구의 기원지 분포를 보더라도 거리상 광주와 가장 근접한 위치의 潭陽郡이 15.0%로 최고율을 보인다. 주월동의 경우도 인접한 月山洞으로부터의 전입이 가장 높고(12.0%), 다음으로 白雲洞, 주월동, 花亭洞의 순으로 모두 인접해 있는 洞들이다. 쌍촌동 역시 인접한 광산구(18.9%), 화정동(15.2%)으로 부터의 전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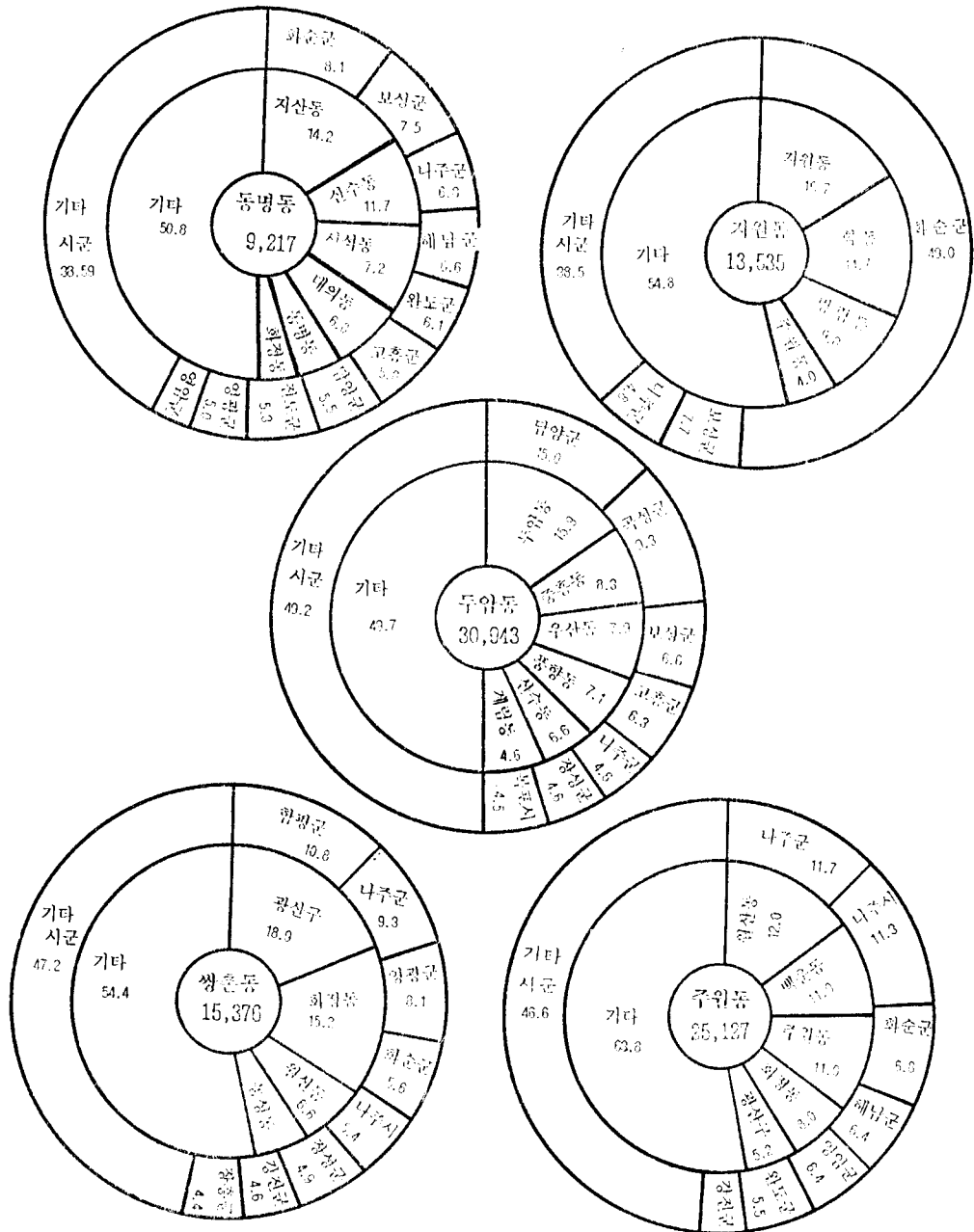


그림 3. 5개 調査洞의 前입 基원지의 구성비

높다. 이같은 근린지역으로부터의 탁월한 전입현상은 지원동, 동명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원동으로 전입되는 전남 道內의 기원지는 인접한 和順郡이 무려 총전입량의 49%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3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두암동, 쌍촌동, 지원동의 3개 동만을 대상으로 한 시내의 기원지를 지도화하면 그림 4와 같다.

한편 道外에서 광주로 전입되는 인구는 5개 동의 총전입인구의 12.2%인 11,449명이며 이 중 서울이 37.4%, 경기도가 15.0%로 인천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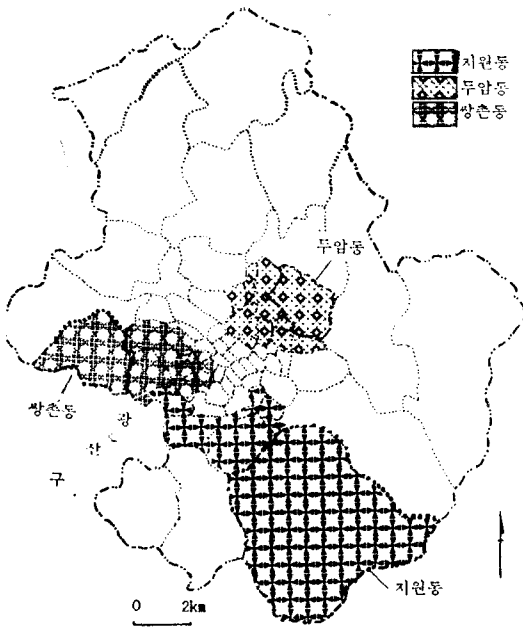


그림 4. 標本 3個洞 전입의 기원지(광주시) 단, 쌍촌동의 기원지 중 광산구는 미표시

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률이 55.9%에 달한다. 그밖의 전입률은 전북이 17.5%이며 영남이 16.0%인데 그 가운데 부산과 대구 두 도시가 약 50%를 점유한다.

(2) 洞別 轉出移動

5개동의 총전출수는 39,430명으로 전입인구의 41.9%에 해당한다. 전출수가 가장 많은 동은 11,901명의 주월동으로 전출은 30.6%에 달한다. 두암동은 8,959명으로 두번째이나 전출률에 있어서는 22.2%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최소한 5명 중 1명은 두암동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셈이 되므로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전입에 대한 전출비를 보면 두암

동을 제외한 4개동은 전출이 전입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6.4~49.7%이지만 두암동만은 29.0%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전출에 있어서도 전입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간의 이동이 뚜렷한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주월동의 경우는 전출인구의 도착지 상위 4개동(芳林, 월산, 백운, 화정동) 모두가 인접한 동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전출의 50.4%나 된다. 지원동 역시 4개동 모두 인접한 동(방림, 鶴雲洞)이거나 인근해 있는 동(주월, 백운동)으로 전체의 38.8%를 점유한다. 또한 도내 목적지로 전출하는 인구의 경우 중 지원동은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화순군이 무려 총전출인구의 38.9%를 점유하고 있다. 또 두암동은 담양군(19.3%)이 주월동은 나주군(15.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모두 근린이동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명동은 전입의 경우처럼 도내 전출인구의 목적지가 비교적 가장 고른 편이다.

한편 道外를 목적지로 하는 전출인구는 5개동 총전출의 18.9%인 7,465명으로 전출한 바 있는 전입의 경우 12.2% 보다 높다. 즉 道外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입보다 전출이 높다는 것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이들 동의 전입, 전출인구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이들을 상대비교 해보면 두암동은 전입률이 가장 높은 반면 전출률은 가장 낮으며 주월동과 쌍촌동은 전입·전출률에서 모두 높다. 지원동은 전입·전출률이 모두 낮고 동명동은 중간수준이다. 이로부터 예측해 본다면 5개동 가운데 두암동의 규모변화와 함께 인구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별 인구는 주택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기적 예

표 7. 5개동의 전입·전출인구 및 이동률

구	분	전	입	전	입	전	출	전	출	전	출/전입비
				률(%)				률(%)			
주	월	동	25,127	64.7	11,901	30.6	47.4				
두	암	동	30,943	76.7	8,959	22.2	29.0				
쌍	촌	동	15,376	63.6	7,639	31.6	49.7				
지	원	동	13,535	50.3	6,650	24.7	49.1				
동	명	동	9,127	60.2	4,281	28.0	46.4				

표 8. 주간 및 휴일의 인구이동과 주중 대비 증가율 : 1986~1988년

연도	1986년				1987년				1988년				1986~1988	
	이 동 수		증가율(%)		이 동 수		증가율(%)		이 동 수		증가율(%)		평균증가율	
주간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주중	8,090	7,668	—	—	8,612	8,292	—	—	8,769	8,939	—	—	—	—
주말	11,719	10,126	44.9	32.1	13,122	12,132	52.4	46.3	12,875	12,186	46.8	36.3	48.1	38.3
휴일	9,109	8,690	12.6	13.3	10,215	10,576	18.6	27.5	12,430	11,141	41.7	24.6	24.7	11.7
연휴	11,746	13,548	45.2	76.7	12,467	14,910	44.8	79.8	13,298	18,339	51.6	105.8	47.3	88.2
명절	9,078	16,128	12.2	110.3	10,339	15,342	20.1	85.0	10,828	18,191	23.5	103.5	18.7	99.4

상행 : 광주출발

하행 : 광주도착

자료 : 주식회사 광주고속 영업부

측단이 가능할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거지 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동일방향 선상의 단거리이동이 가장 탁월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서울 중심의 여러 연구(尹, 1979; 權 등, 1987; 李·金, 1990)뿐만 아니라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의 연구(Stillwell and Scholten, 1989)에서도 밝혀졌고 다소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서울시내 區間 이주 前과 이주 後의 통근거리 비교연구(許, 1991)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단거리 이주 현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지역인 광주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으로 보아 한국의 일반적 이동특성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4. 一時的 移動

1) 週間 및 休日移動

오늘날 인구증가와 도시, 교통기관의 발달은 日常的人口移動量을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놓았다. 따라서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日常移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광주를 중심으로해서 전국 몇개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1일평균 고속버스(광주고속) 여객이동량의 주중, 주말, 휴일 등, 요일과 공휴일에 따른 변화를 보면 표 8과 같다. 여기에서는 고속버스 여객만을 분석지표로 삼은 까닭에 고속버스의 노선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주말이나 휴일, 연휴에는 주중보다 증가할

것은 당연하나 휴일보다는 주말이, 주말보다는 연휴의 이동이 훨씬 많으며 구정 또는 추석 대명절에는 압도적 증가를 보인다(표 생략). 특히 명절 때의 下行(광주도착) 이동수는 주중보다 무려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방면 하행수도 대폭 증가하나 上行(광주출발)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경상도 방면의 명절 이동이 수도권과는 반대로 하행보다 상행이 많다는 것은 부산, 대구 등의 영남지역으로 진출한 호남인보다 광주 중심의 호남지역으로 진출한 영남인이 더 많음을 뜻한다.

명절 인구이동이 구정보다 추석에 현저함으로 보아 한국 제일의 명절은 추석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구정 때의 감정적 이동자가 시기적으로 근접한 신정 때로 분산되는 현상이라고도 파악할 수 있다.

전주는 서울, 경기만큼이나 명절 이동이 뚜렷하지는 않다. 근거리 이동은 명절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분산이동을 하거나 지리적 또는 심리적으 수시 이동이 용이하고 따라서 이동빈도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1986~1988년의 3년간 주중 대비 변화율을 보면 휴일에는 상행선이 평균 24.7% 주말에는 상행선이 48.1% 증가하며 연휴에는 하행선이 88.2%, 명절에는 하행선이 99.4% 증가하고 있다. 즉 주중 대비 변화율을 보면 휴일에는 상행선이 평균 24.7%, 주말에는 상행선이 48.1% 증가하며 연휴에는 하행선이 88.2%, 명절에는 하행선이 99.4% 증가하고 있다. 즉, 주말과 휴일

에는 타지역으로의 방문이동이 많고 연휴나 명절에는 일시적 귀환이동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중이동의 월별 분포는 8월이 가장 높다. 서울을 예로 들면 1986년 상행선 1일평균 이동이 5,225명이고 8월 중에는 10,089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주중 평균보다 93%나 높다. 1986년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92%, 1988년에는 95%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8월 중의 주말이나

휴일이동은 다른 달과 별 차이가 없으며 9월에는 주중이동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이같은 현상은 8월 중의 하계휴가와 관련될 것이다. 연중·주중이나 주말이동이 가장 적은 달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6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계절이동은 농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6월에 이동량이 적어지는 현상은 열차의 여객이동에 있어서도 현저하다. 즉 1987~1990년 서

환자수 지역별	(단위: #000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광주 직할시	(100,211/134,856/171,922)																		
목포시	(8,783/12,598/15,531)																		
여수시	(3,827/5,814/7,193)																		
순천시	(4,860/6,925/8,690)																		
나주시	(. /1,482/972)																		
이천시	(. /243/153)																		
담양	(3,762/5,405/6,729)																		
곡성	(3,188/3,744/4,906)																		
구례	(2,358/3,261/3,897)																		
광양	(2,546/4,994/5,254)																		
여천	(2,238/4,084/5,587)																		
승주	(2,395/3,473/4,166)																		
고흥	(4,126/5,823/7,066)																		
보성	(4,397/5,286/6,913)																		
화순	(5,244/7,509/7,854)																		
장흥	(3,392/4,334/5,721)																		
강진	(3,090/4,345/5,398)																		
해남	(3,685/4,832/7,223)																		
영암	(3,547/4,559/6,610)																		
무안	(3,638/4,957/7,123)																		
나주	(6,145/8,664/11,597)																		
함평	(2,468/3,730/4,968)																		
영광	(3,890/5,789/6,384)																		
장성	(3,887/5,329/6,692)																		
완도	(2,375/3,631/5,203)																		
진도	(1,777/2,464/3,454)																		
신안	(1,866/3,266/4,106)																		

(1986-■/1988-■/1990년-■)

그림 5. 광주 및 전남도내 시·군별 수진환자수

자료: 전남대학병원

표 9. 광주 및 전남의 시군별 환자이동률 : 1986~1990년

인도	1986년**	1990년
10 이상	광주시	광주시, 나주군, 장성군
8~1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여천시,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6~8		목포시, 광양군, 보성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4~6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나주군*, 장성군	여천시, 순천시, 승주군, 고흥군, 해남군, 신안군
2~4	목포시, 여수시, 광양군, 여천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0~2	승주군, 신안군	나주시, 여천시

* 1986년 나주군, 여천군은 각각 나주시, 여천시를 포함.

** 1986년은 1985년 인구에 대한 비율임.

자료 : 전남대학병원

올—광주, 목포, 여수의 호남선과 전라선 통일호 이상 특급열차의 여객이동수를 분기별로 보면, 2/4분기(4~6월)의 이동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여 1/4분기의 24.2%, 3/4분기의 30.4%, 4/4분기의 25.3%에 비해서 가장 적다. 이처럼 3/4분기의 열차여객 이동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고속버스 여객이 8월에 집중되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2) 外來患者의 受診移動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으로 환자수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시설을 찾는 행위도 일시적 인구이동의 범주속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동은 타유형의 인구이동처럼 유입과 유출의 兩面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남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수를 분석하였으므로 인구유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전남대학병원을 찾는 환자 또는 疑似환자를 대상으로 1986~1990년의 환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광주와 전남이 1986년 187,805명 1988년 261,397명, 1990년 331,261명으로 1986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39.2%와 76.4%로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그림 4와 같이 광주가

100,211명(1986), 134,856명(1988), 171,922명(1990)으로 각각 해당년도의 51.6~53.4%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목포(4.7~4.8%), 나주군(3.3~3.5%) 등 26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한다. 연도별 환자수의 변화를 1986년 기준(나주시와 여천시는 1987년 기준)으로 보면 광양군이 2,546명에서 1988년 4,994명으로 96% 여천시도 124명에서 243명으로 96% 증가하여 최고치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여천군이 82%이다. 1990년에는 여천군이 무려 150%, 신안군이 120%, 완도군이 119%, 광양군이 108% 증가하고 유일하게 나주시만이 10% 감소하였다. 198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역은 1988년에 여천시와 광양군(90% 이상), 여천군, 신안군(70% 이상), 완도군과 여수시(50% 이상)의 6개 지역에서 1990년에는 여천, 신안, 완도, 광양군(100% 이상), 장성, 담양, 승주, 강진, 고흥, 영암, 함평, 나주군, 여수, 순천, 목포, 광주시(70% 이상), 화순, 보성, 곡성, 영광, 장흥, 구례군(50% 이상) 등의 25개 지역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여천군과 광양군의 현저한 증가는 산업도시로서의 인구증가와 함께 여러 공업지역에서 문제되는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별 환자이동률을 보면 표 9와 같다. 1986년 광주가 10.8%로 가장 높고 화순, 나주

군이 5.0% 이상이며 4.0% 이상인 지역은 담양, 곡성, 구례, 장성군으로 대개 광주와 인접한 지역들이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는 광주의 15.0%를 비롯해서 장성, 나주군이 10.0%,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영암군이 9.0%를 상회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환자이동의 월별 분포는 전반적으로 균등한 편이나 7, 8월이 18.3~19.9%로 약간 높고 4, 5월이 15.1~16.3%로 약간 낮다.

끝으로 전남대학 병원을 찾는 타시·도의 환자분포를 보면 전북이 1987년 64.9%, 1988년 60.1%, 1989년 71.7%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서울이 각각 12.6%, 17.7%, 15.3%를 차지한다.

5. 結 論

인구이동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공간적 인구변화의 한 현상으로서 연구의 접근방법도 다양하며 선택적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인구이동의 자료에 따라서도 자못 제한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은 일시적 인구이동의 분석인 경우 더욱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이동량과 그 분포특성에 관해서 몇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접근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던 바, 영구적 이동으로서 생산유통에 의한 이동, 주거지이동, 그리고 일시적 이동으로서 고속버스여객의 이동과 환자의 수진이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1986년~1990년 광주시 전출입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역시 전남이 탁월하지만 점차 전국으로 이동공간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내파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 중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일원으로의 확산도 실현되고 있다.

1980~1985년 센서스 생산유통에 의한 광주 및 전남 도내의 순이동을 보면 대도시 광주, 최근 산업도시로 성장한 동광양시를 끼고 있던 당시의 광양군, 그리고 여천출장소(현, 여천시)를 제외

한 전 도시가 전출초과지역으로 애그로타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광주 유일의 전출초과 지역인 바 상당부분이 CBD에 해당하므로 상주인구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전입이 탁월한 도시의 연령층은 15~19세에 학생층으로 이동에 있어서 교육인자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더구나 광주직할시에서는 앞으로 타시·도의 광주시내 고등학교 진학을 차단할 계획이어서 국민학생의 광주전학과 더불어 중학생의 위장전입마저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들의 전입에 따라 광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5개 동의 표본조사에서 주거이동은 기원지나 목적지가 같은 동이거나 인접 또는 근린洞인 경우가 탁월하며 시외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이주자의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距離認知가 중요한자임을 입증하는 점이며 이같은 단거리 이동성향은 Ravenstein의 인구이동법칙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동의 기원지나 목적지가 道外일 경우는 전북보다도 서울이 훨씬 많아 광주—서울 대도시간의 중력은 거리를 극복하고 있고 양자 사이에 입지한 중소도시는 소외되어 도시내파현상이 뚜렷함을 전술한 바와 같다.

일상이동에 있어서는 주말과 연휴 때의 대폭 증가가 괄목할만한데 이를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해 보면 주중에는 둘다 비등하나 주말과 휴일에는 주중에 비해 상행의 증가율이 더 높고 연휴나 명절에는 하행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 이것은 주말과 휴일에는 방문이동이, 연휴에는 일시적 귀환이동이 더 많다는 사실의 간접적인 시사로 볼 수 있다. 한편 주말과 휴일의 이동빈도를 비교했을 때 일상이동에 있어서는 주말의 비중이, 그리고 구정과 추석을 비교했을 때는 추석의 비중이 더 크다. 주중이동이 가장 많은 달은 8월인바, 이는 하계휴가 때문이다. 6월은 주중이동이 가장 적은 달이기는 하나 8월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환자의 수진이동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큰 폭의 증가일로에 있으며, 광양, 여천의 공업지역에서 더욱 현저하다.

끝으로 센서스 생산유통에 의한 인구이동 측

光州 中心의 人口移動 特性에 관한 研究

정이 문제점은 각 연령층별로 적용되는 생산율이 이론상 필연적으로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연령층에 따라 1.0 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서 모순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센서스 통계상의 문제일 뿐이다.

인구이동은 그 자체가 생활이며 생활환경변화

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인구이동을 하나의 적응 과정 또는 발전과정이라 규정한다면 오늘날의 고도산업사회에서 지역변화의 인자로서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의 필연성은 재삼 강조될만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다.

(投稿 1993년 1월 6일)

부록 1. 全國 年齡別 補正人口 및 生殘率(男子)

연령	센서스 인구		보정 인구		생산율
	1980	1985	1980	1985	
0~4	1,963,963	1,922,758	2,031,046	1,978,950	1.0159
5~9	2,282,813	2,025,353	2,329,630	2,063,275	1.0062
10~14	2,293,386	2,310,570	2,334,723	2,343,971	0.9689
15~19	2,186,973	2,227,322	2,227,757	2,262,198	0.9949
20~24	2,067,729	2,185,720	2,095,961	2,216,388	1.0042
25~29	1,540,965	2,027,185	1,610,164	2,104,796	1.0302
30~34	1,293,533	1,589,610	1,369,742	1,658,786	1.0058
35~39	1,127,158	1,324,369	1,193,157	1,377,636	0.9593
40~44	1,108,457	1,108,685	1,123,090	1,144,557	0.9502
45~49	868,659	1,042,989	889,574	1,067,131	0.9205
50~54	609,166	809,619	616,728	818,883	0.9190
55~59	521,797	560,580	528,126	566,759	0.8451
60~64	373,222	440,387	379,257	446,298	0.8298
65~69	260,597	306,710	269,211	314,725	0.7269
70~74	161,867	190,553	167,223	195,685	0.6354
75~79	74,175	103,513	76,712	106,255	0.4838
80~84	31,546	36,163	32,635	37,114	0.4754
85 이상	11,296	15,140	11,718	15,516	0.0000
계	18,749,306	20,227,564	19,286,456	20,719,259	

부록 2. 全國 年齡別 補正人口 및 生殘率(女子)

연령	센서스 인구		보정 인구		생산율
	1980	1985	1980	1985	
0~4	1,830,729	1,779,797	1,893,065	1,804,733	1.0104
5~9	2,138,133	1,890,997	2,185,796	1,912,690	0.9959
10~14	2,146,751	2,165,415	2,178,700	2,176,906	0.9649
15~19	2,052,756	2,088,942	2,085,029	2,102,196	0.9999
20~24	1,985,909	2,059,370	2,043,444	2,084,796	1.0154
25~29	1,541,207	2,043,223	1,604,028	2,074,855	0.9647
30~34	1,225,708	1,525,628	1,265,167	1,547,403	1.0055
35~39	1,096,183	1,256,812	1,129,634	1,272,105	0.9638
40~44	1,051,194	1,078,823	1,070,938	1,088,731	0.9847
45~49	913,154	1,046,223	930,975	1,054,598	0.9581
50~54	716,759	885,640	729,238	891,592	0.9785

55~59	603, 556	707, 177	615, 816	713, 547	0.9303
60~64	448, 835	566, 489	461, 095	572, 913	0.9207
65~69	359, 686	416, 107	381, 815	424, 522	0.8293
70~74	263, 229	310, 701	279, 048	316, 621	0.7605
75~79	155, 111	209, 577	164, 511	212, 212	0.6270
80~84	86, 661	101, 497	91, 925	103, 144	0.6696
85 이상	41, 946	60, 588	44, 575	61, 549	0.0000
계	18, 657, 509	20, 192, 088	19, 154, 799	20, 415, 442	

註

- 1) 가임여성의 연령을 15~44세로 정한 이유는 한국보건연구원의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여성 표본조사)에서 45~49세 연령층의 출산이 도시, 농촌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2) 순이동률을 $5P_r \cdot P_r$ (본 연구에서는 1985년 추정인구)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이유는 이동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망을 미리 제거하고 이동가능성에 노출된 실제인구의 이동을 구하고자 함이다.
- 3) 1986년 이후에 광주시는 광주직할시로, 여천출장소는 여천시로 승격되었고, 금성시는 나주시로 地名이 변경되었다. 1988년에는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었으며, 1989년에는 광양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되었다.
- 4) 한국의 귀환이동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행해지기 시작했다(Choi, 1981; Lee, 1984; 안, 1987).
- 5) 동광양시의 제 3 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평균인 9% 보다 훨씬 높은 54%이고, 제 1 차산업의 비중은 15%(전남 평균 54%)에 지나지 않는 전형적인 공업도시이다. 동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92%로 상위권에 속한다.
- 6) 각 洞의 1987년 총인구에 대한 전입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 7) 여기에서는 「이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移住(migration)와 구별된다. 즉 日常移動(daily movement)이란 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발생하는 일시적 이동을 의미한다.
- 8) 신안은행 부설 신한종합연구소가 조사한 우리나라 도시의 경제력 비교에 따르면,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1990~1992년의 3년간 경제규모확대에 관한 成長性 調査에서 동광양시가 전국 1위, 여천시가 2위를 차지하여 이들 두 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

업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 9) 해당년도의 지역별 인구에 대한 이동환자수의 비율이다. 단, 1986년의 이동율은 198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文 獻

- 權容友·林漢洙·張載勳·崔基燁, 1987, 서울住民의 京畿道 指向移住가 首都圈 地域變化에 미치는 影響, 應用地理, 10, 91-103.
- 권태환·김태현, 1990, 한국인의 생명표: 1970~19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尹鍾周, 1977, 人口學, 한얼문고, 서울.
- 尹鍾周, 1979, 都市地域의 住居移動에 관한 研究: 서울市 東大門區 地域을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8, 127-137.
- 李美善·金永聲, 1990, 生涯週期에 따른 서울市民의 住居移動行態, 地理學研究, 16, 53-58.
- 李興卓, 1987, 人口學: 理論과 實際, 法文社, 서울.
- 許宇巨, 1991, 서울의 通勤과 居住地選擇, 地理學, 26(1), 53-57.
- 安在鶴, 1987, 歸還人口移動による人口集團의 特性變化: 韓國全羅南道를 事例地域として, 筑波大學修士學位論文.
- Choi, J.H., 198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Urban to 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at Brown University.
- Lee, O.J., 1984,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 Press.
- Stillwell, J. and Scholten, H.J. (ed.), 1989, *Con-*

temporary Research in Population Geography: A Comparison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Vancing, D.R. Jr. and Kontuly, T., 1978,

Population dispersal from major metropolitan region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3(1), 49-73.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Flows in Kwangju Metropolitan Area*

Hae-Chong Chouh**

Summary

This paper aims to show the various aspects of migration in Kwangju metropolitan area, southwestern Korea, for a period of years 1980~1985.

Migratory patterns are spatially extensive in countryside around Kwangju, and due to high accessibility to the metropolitan area urban implosion emerges in the city.

In Chonnam province where Kwangju is located, all cities and counties except for such industrial areas as Yochon, and Kwangyang are experiencing population losses in terms of net migration by survival rate methods. Kwangju is the exceptionally one of in-migration areas in Chonnam, though its central part(Dong-Gu) is also an out-migrated area.

Predominantly in-migrating urban areas have high proportions of a student age group between 15~19 years, and that reflects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factor in migration analysis. The municipal authorities of Kwangju are planning to block the wa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 in the outskirts of Kwangju to entrance to high school in the city. That

may stir up migrations into Kwangju for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ecause the city is expected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higher and better than remaining Chonnam areas. Population of Kwangju would, therefore, grow as the students migrate into the city.

The findings on the residential intra-city movement in selected 5 Dongs indicate that implications of a short-distance movement are noteworthy; neighbour to neighbour, and the nearest stop in the way from the outer Kwangju as well. Trends in a short-distance movement are in accord with Ravensteins's "law of migration". But in case of the inter-provincial migration to Kwangju, the number of in-migrants from remoter Seoul is more than that from nearer Chonbuk province. Therefore it supports the fact that the movement between capital region and far off local cities overcomes a distance barrier.

The temporary mobility for a day has been increased as the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and it reaches a peak on weekend or on consecutive holidays. The number of temporal movers to Kwangju from capital region and Yongnam area, southeastern Korea has a great

* This paper has been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the year of 1988.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crease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the passengers' mobility, in particular on *Myongjöl* (the ethnic and traditional festival day) in comparison with on weekdays. By comparison with two largest *Myongjöls*, the number of movers is more on *Chusök* (The Full Moon festival on lunar August) than on *Söl* (lunar new year's day).

Annual peak point of weekday movers appears in August because of summer vacation. But the lowest one appears in June, which is related to the busy farming season.

A patients' move for medical services is on the increase with a change of living conditions. It is especially true in the industrial counties such as Kwangyang and Yochon.

By way of conclusion,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one of the problems we face in survey of migration volume by the survival rate method is that the survival rate sometimes exceeds the value 1.0, in normal states of which should be under 1.0. It may be due to the shortcoming from the census statistics. We should not give therefore too much stress on the importance of migrations or moves as an element of changes in

spatial patter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some geographic facts as the followings:

① One of the outstanding phenomena in all types of movement is the selectivity of age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related to education and employment.

② Short-distance movement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avenstein's law, but in case of long-distance movement, in-migration from capital region is prominent in spite of remoteness. The gravity between large cities such as Kwangju and Seoul, which has a frequent human movement, causes urban implosion of small cities between those cities.

③ The temporary mobility for a day, in contrast to that of permanent movement, is more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its volumes and annual variations are a large-scale.

④ Passengers' mobility is high in industrial cities. And the scope of patients' mobility is narrower than passengers'.

Key words: migration, net migration, daily migration, census survival rate method